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  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, 연말에 8개월 만에 최저치
- WSJ: 미국 IT 회사, H-1B 비자로 외국인 기술자 총원

#### 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국채 소폭 상승세
- Bloomberg: 시티, BofA에 이어 모건 스탠리도 '기후 연합' 탈퇴

#### [물류]

- Bloomberg: 미 동부 및 걸프 항만 노사, 다음 주 협상 재개

#### [주택]

- Bloomberg: 미 모기지율 지난 7월 이래 최고치... 수요 위축

#### [미중 경제]

- NYT: 중국 기업들, 트럼프 2기에도 관세 조치 피할 수 있다
- WSJ: 미국기업에게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

#### [글로벌 경제]

- WSJ: 아시아 제조업 확장... 신뢰는 하락
- WSJ: 중국 민간 제조업 활동 지표 성장세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소매업체들 간에 부익부 빈익빈
- TechCrunch: 2025년 기후 기술과 인공지능
- Bloomberg: 10여년 만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 감소
- Bloomberg: 작년 정시 도착 랭킹 10위 항공사들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# [미국 경제]

### **Bloomberg: US Initial Jobless Claims Fall to Eight-Month Low to End 2024**

#### **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, 연말에 8개월 만에 최저치**

-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. 놀랄 만큼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감소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
- 지난달 28일에 끝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9천 건 감소해 21만1천 건을 기록했다.
-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184만건을 기록했다.

## Bloomberg 기사

**WSJ: The Visas Dividing MAGA World Help Power the U.S. Tech Industry**  
**미국 IT 회사, H-1B 비자로 외국인 기술자 충원**

- 최근 IT 전문기술자 충원을 두고 트럼프 지지자들 간에 다툼이 있다.
- 이른바 ‘미국을 위대하게(MAGA)’ 지지층은 미 IT 업체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- 반면, 일론 머스크 등 IT 기술 업체 책임자들은 미국 비즈니스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건은 H-1B 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.
- 아마존, 구글, 테슬라 등은 H-1B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있다. 이들 대부분은 인도에서 오고 있다. 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, 컴퓨터 사이언스, 엔지니어링 등에서 일하고 있다.
- H-1B 비자는 현재 연 8만5천개가 허용되고 있다.

## WSJ 기사

**[미국 금융]****Bloomberg: Treasuries Post Annual Gain as Fed Starts Interest-Rate Cuts**  
**미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국채 소폭 상승세**

- 작년 미 국채 시장은 인플레이가 작년 1분기 이후 다시 줄어들고, 연준이 3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,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되었다.
- 작년 4분기에는 금리가 다시 상승해 국채 수익률이 줄어들었다. 작년 국채 상승 폭은 지난 2023년 상승 폭보다 작았다. 작년 하반기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로 국채 단기 금리가 인하했었다.
- 현재 10년물 금리는 2년물 금리를 상회하고, 30년물은 5년물을 0.5%포인트 상회하고 있다. 금리 역전 현상은 회복된 상태다.
- 많은 금리 전략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올해 국채 단기 금리의 경우 최소 50 베이스 포인트, 10년물의 경우 30베이스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.

## Bloomberg 기사

**Bloomberg: Morgan Stanley Follows Citi, BofA in Quitting Climate Group**  
**시티, BofA에 이어 모건 스탠리도 ‘기후 연합’ 탈퇴**

- 모건 스탠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기후 बैं킹 그룹인 Net-Zero Banking Alliance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. 모건 스탠리 이전에 시티 그룹과 BofA도 탈퇴를 발표했었다.
- 월스트리트 기업들은 공화당 정치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.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들 기업들의 기후 노력에 대해 비판하고 조사를 시행했었다. 심지어 깨어있는 자본주의("woke" capitalism) 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.
- '깨어있는 자본주의'는 이른바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들에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이를 마케팅이나 경영 방침에 반영하는 현상이다.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란 비판도 있다.
- 예를 들어 텍사스는 지난 11월에 석탄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'친 기후 환경 전략'을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 혐의로 블랙록, 뱅가드그룹, State Street Corp에게 소송을 걸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물류]

#### **Bloomberg: US Dockworkers, Port Employers Set to Restart Talks Next Week**

##### **미 동부 및 걸프 항만 노사, 다음 주 협상 재개**

- 동부 및 걸프 항만의 노동 계약이 오는 1월 15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. 사측과 노조측은 다음 주에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.
-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는 항만 터미널 자동화 기계 추가 설치 여부다. 노조측이 반대하고 있으며, 자동화 기계를 추가할 경우 파업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.
- 봉급 관련 계약은 이미 지난 10월 초 이루어졌다. 향후 6년간 62% 인상될 예정이다.

Bloomberg 기사

### [주택]

#### **Bloomberg: US Mortgage Rates Rise to Highest Since Early July, Suppressing Demand**

##### **미 모기지율 지난 7월 이래 최고치... 수요 위축**

- 작년 크리스마스 시기의 미 모기지율이 지난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해 주택 구입 신청과 채용자 신청을 위축시키고 있다.
- 30년 고정 모기지의 경우 지난 12월 27일 끝나는 주에 8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6.97%로 나타났다. 그 전주에는 14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했었다고 모기지은행협회가 오늘 목요일 밝혔다.

- 이 기관의 주택구입 신청 지수는 7%나 감소해 지난 1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 채용자 지수도 23% 이상 떨어져 연간 최저치를 기록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미중 경제]

#### **NYT: Chinese Companies Have Sidestepped Trump's Tariffs. They Could Do It Again.**

##### **중국 기업들, 트럼프 2기에도 관세 조치 피할 수 있다**

- 트럼프 1기 정부 때 중국 기업들이 관세 조치를 피하는 방법이 있었다. 예를 들어 자전거의 경우 최종 생산과 조립 단계를 중국이 아닌 대만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캄보디아, 인도 등에서 할 경우 25% 관세를 물지 않고 미국에 수출이 가능했다.
- 이 같은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. 경제학자들은 “중국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의 제품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. 그러면서 중국 바깥 공장을 이용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.”라고 말했다.
- 따라서 당초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미국에서의 제조와 중국과의 공급망 단절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. 오히려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.
- 한 마디로 중국은 우회 경로 수출로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 있다.

NYT 기사

#### **WSJ: U.S. Companies Vouched for China During Trump's First Term. Not Anymore.**

##### **미국기업에게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**

-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반대했었다.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다가오는 가운데, 미국 기업들은 이번엔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. 중국이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.
-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사라졌다. 주중 미국상공회의소(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)는 회원사들이 새로운 투자를 위해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.
-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Michael Hart는 “중국 내 미국기업들과 보조금이나 정책 혜택을 받는 중국 민간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.”라고 말했다.
- 작년 8월, IBM은 중국 내 경쟁 심화를 이유로 중국 연구 개발 부서(R&D)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었다. GM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BYD 같은

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밀려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18년 13.7%에서 2023년 8.4%로 감소했다고 밝혔다.

WSJ 기사

### [글로벌 경제]

#### WSJ: Asia's Manufacturing Expands Despite Export Woes, Waning Confidence

##### 아시아 제조업 확장... 신뢰는 하락

- 작년 12월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이 확장됐다. 하지만 수출 부진과 신뢰 약화로 전망이 밝진 않다.
- S&P 글로벌 아세안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작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연말에 소폭 하락했었다. 필리핀, 인도네시아, 태국, 대만 등 몇몇 국가가 성장을 주도했다. 하지만 아시아 제조업체들의 신뢰도는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.
- S&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이코노미스트 Maryam Baluch는 “아시아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내수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. 국제 수요 약세로 신규 수출 주문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.”라고 말했다.
- S&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이코노미스트 Usamah Bhatti는 “국내 경제 문제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시아 제조업체의 전망이 밝지 않다. 이들이 무역 마찰을 어떻게 해쳐 나갈지 불확실하다.”라고 말했다.

WSJ 기사

#### WSJ: China's Private Factory Activity Gauge Shows Continued Expansion

##### 중국 민간 제조업 활동 지표 성장세

- 중국 민간 제조업 활동 지표가 3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.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. Caixin Media와 S&P Global에 따르면 12월 Caixin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50.5를 기록했다.
- 카이신은 생산량 하위 지수는 14개월 연속 증가했고, 12월 총 신규 주문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. 하지만 투자 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감소해 성장 속도는 느려졌다고 덧붙였다.
- Caixin Insight Group 수석 이코노미스트 Wang Zhe는 “글로벌 경제와 무역의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.”라고 말했다.
- 그는 “2025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. 미리 정책을 준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. 향후 정책은 가계 소득 증가, 국내 소비 능력과 소비 의향 상승에 집중해야 한다.”라고 덧붙였다.

## WSJ 기사

**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**WSJ: Big Retail Gets Bigger as Smaller Players Struggle**  
**소매업체들 간에 부익부 빈익빈**

- 대형 소매업체와 유통업체들의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. 2014년 코스트코, 월마트, 아마존 3대 소매업체는 미국 전체 소매 판매의 11%를 차지했었다. 하지만 지난 3개 분기 동안에는 전체 소매 판매의 17%를 차지했다.
- 대형 소매업체들의 2023년 식료품 시장 점유율이 23%로 2000년 때보다 2배 증가했다. 반면, 소형 소매업체들의 식료품 시장 점유율이 66%에서 54%로 줄어들었다. 대표적으로 달러 스토어가 대형 소매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피해를 보고 있다.
- 3대 소매업체의 2023년 자본 지출은 약 470억 달러에 달했다. 반면, 지난 몇 달 동안 Big Lots, 컨테이너 스토어, Part City 등 일부 소형 소매업체들은 파산했다. 둘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,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.

## WSJ 기사

**TechCrunch: 2025 will be the year climate tech learns to love AI**  
**2025년 기후 기술과 인공지능**

-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인플레이션법(IRA)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.
- 하지만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 때문에 원자력, 핵융합, 재생에너지, 수소 등 다양한 전력원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.
-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Three Mile Island의 원자로를 재가동했다. 근처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 받기 위해서다. 핵융합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.
- 이와 관련해 허가 절차가 변경되고 투자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. 더 많은 기업들이 전력원과 데이터 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.
-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도 어려워 취약해질 수 있다.

## TechCrunch 기사

## Bloomberg: Tesla's Annual EV Sales Drop for First Time in Over a Decade 10여년 만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 감소

- 테슬라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. 2024년 테슬라는 179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. 이는 분석가들의 추정치는 물론, 2023년보다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다.
- 트럼프 당선인이 인플레이션법에 따른 전기차 인센티브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 테슬라의 문제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. 이외에도 테슬라는 올해 초 베를린 공장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, 공급망 문제, 전기차 산업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.
- 한편,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상반기 공개될 저렴한 모델과 자율주행 기술에 힘입어 2025년 20~30%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.
- 머스크는 트럼프의 인센티브 폐지가 테슬라에게도 타격이지만, 경쟁사들에게 더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. 또한 트럼프가 자율주행차의 연방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며, 테슬라와 로보택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## Bloomberg: These Are the 10 Most On-Time Airlines in the World for 2024 작년 정시 도착 랭킹 10위 항공사들

- 항공 데이터 조사 회사인 Cirium이 작년 항공사들의 정시 도착 순위를 비교 분석했다. 도착 예정 시간 14분59초 내에 도착하는 경우 정시 도착으로 간주했다.
- 아래는 10위 내의 항공사로 미국은 2개의 항공사가 포함됐다. (괄호 안은 정시 도착률)

1. Aeromexico: 86.70% on-time arrivals
2. Saudi Arabian Airlines (Saudia): 86.35%
3. Delta Air Lines: 83.46%
4. LATAM Airlines: 82.89%
5. Qatar Airways: 82.83%
6. Azul Airlines: 82.42%
7. Avianca: 81.80%
8. Iberia: 81.58%
9. Scandinavian Airlines: 81.4%
10. United Airlines: 80.93%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**새해 美국채 만기도래 3조달러...단기채 비중 커 채권시장 경보음  
장기채로 전환 때 금리상승 압력...재정적자 맞물려 채권시장 부담 가중**

2025년 만기 도래가 예정된 미국 국채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단기채 비중이 크다는 점이 새해 채권시장에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미 CNBC 방송이 1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행한 국채 규모는 26조 7천억 달러로 2023년 대비 28.5% 급증했다.

신규 발행 국채 가운데 상당 비중이 만기가 짧은 단기채로 이뤄졌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